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印刷人 方文榮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澤根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㉗8131—2
本社直通 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好經道者,
不競於利,
有利無利,
無欲不惑.

바른 도를 즐기는 사람은 이익을 다투지 않나니,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욕심이 없어 미혹하지 않는다.

<法句經>

學士 871名, 새로 輩出

77학년도 學位授與式 25日 擧行

博士4, 碩士1백14名

首席卒業에 曺明心(印哲)孃

77학년도 學位授與式이 오는 25일(土) 11시부터 本校 대운동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學位수여식은 李瑄根총장을 비롯한 財團·宗團·同窓會관계인사와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東大附高밴드의 삼귀의례 주악으로 開式되어 學位수여, 총장式辭順으로 진행된다. 이날 학위授與式에는 全校수석 曺明心(佛敎大·印哲科)양을 비롯한 학사 8백71명, 3개大學院碩士 1백14명, 博士2명, 명예박사 2명등이 영예의 학위를 받는다.

이어서 거행되는 시상식에서는 수석을차지한 조명심(평균=91·82점)양을 비롯한 單大別 수석졸업자 7명이 總長賞을 받으며, 前사단장 魚演浩군을 비롯한 前호국단간부에 대한공로상 표창도 있게된다. 각 單大別 수석졸업자는 佛敎大 曺明心(印哲)양, 理大 李花迎(統計)양, 法文 政大 裵承守(法學), 경상大 朴商喆(경영), 농림大 魚演浩(林學), 공과大 金道榮(工經), 師範大 金楠仁(社敎)군등이다.

한편 博士學位는 文學博士에 金時泰(제주大)교수, 理學博士에 朴榮基(연세大)교수등 2명이 영예의학위를 받게된다.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李耘虛(本校譯經院長)스님과 金容民(建國大學院)교수에게 佛典번역과 교육및 학술분야에 공헌한 업적으로 명예 哲學博士 학위가 수여된다.

◇金容民명박

◇李耘虛명박

◇朴榮基박사

◇金時泰박사

※博士學位授與者 略歷
◇金時泰(文學박사·濟州大교수) ▲學位論文=「韓國 프로文學批評硏究」—1920~30년대를 중심 ▲1957~63 本校 國文科 ▲63~65 本校 대학원 碩士과정 ▲66~76 本校 대학원 博士과정 ▲66~濟州大學 國文科 조교수(現)
◇朴榮基(理學박사·연세대 수학과교수) ▲學位論文=「Note on the Laplace and Fourier-Transformatron of the Analytic Functions in the half Complex Plane」 ▲55~59 연세대 理工大 ▲59~61 同校 석사과정 ▲62~67 本校 ▲74~77 本校 박사과정, 연대교수(현), 文理大강사(현)

<名博프로필 2면참조>

◇공로상受賞者
▲魚演浩(林學) ▲許謹昌(經營) ▲申尚雄(敎敎) ▲鄭允煥(인철) ▲韓春鎬(수학) ▲魯彰煥(行政) ▲李尚一(경영) ▲李榮根(林學) ▲姜潤錫(化工) ▲崔起承(전기) ▲李仁鎔(科敎) ▲金伶美(社敎) ▲郭大洪(경행) ▲金金龍(國文) ▲朴海石(體敎) ▲李彦(임학) ▲全洪基(체교) ▲李潤鎬(경행) ▲安明淑(家敎) ▲鄭尚曦(佛敎)

出版文化賞 受賞
「韓佛教撰述文獻總錄」으로

본교 출판부(부장=金鎬鎭)는 지난 해에 발간한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으로 제18회 한국 출판문화상(한국일보사 제정) 제작상을 받았다.

본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洪庭植박사)에서 편찬한 이 總錄은 불교관계문헌·자료를 수집,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종래 목록들의 오류를 시정, 한국불교학계 발전에 커다란 지침서가 되어왔다.

이 總錄은 同연구소 연구원인 金煐泰, 高翊晋, 徐閏吉교수등이 75년부터 2년여동안 방대한 자료의 정리, 새로운 자료발굴등 각고의 노력끝에 편찬한 것이다.

佛書展示台設置
G건물4층에

譯經院(院長=李耘虛박사)에서 出刊되는 佛書를 전시하기 위한 도서전시대가 G건물 4층에 설치되었다.

李瑄根總長 卒業式辭

建學精神 追求로 國家發展의 役軍이 되라

實利보다 自己犧牲的인 奉仕로

親愛하는 卒業生 여러분!

오늘 學校法人 東國學院 理事長 尹月下 大禪師를 비롯한 理事 여러분과 佛教宗團의 高僧大德스님, 그리고 內外貴賓과 學父母 여러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本人은 卒業生 여러분의 學位受領을 衷心으로 祝賀하는 바입니다.

卒業生 여러분! 本人은 이제 훌륭한 役軍으로 成長한 여러분을 떠나보내면서 同僚 教職員들과 더불어 惜別의 情을 禁할 길 없읍니다. 특히 本人이 本校 總長으로 就任하기 五個月前에 入學한 여러분을 그동안 보살피고 채찍질 하며 길러온 總長으로서의 깊은 感慨와 기쁨을 누를 길 없읍니다. 한편으로는 東國大學校의 建學理念인 부처님의 廣大無邊한 智慧와 慈悲의 眞髓를 여러분에게 좀더 철저하게 體得시키지 못한 自愧心을 느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在學期間에는 國內外的인 激動과 試鍊에도 不拘하고, 東國의 中興과 雄飛를 앞당기는 健實한 基盤이 造成되었읍니다. 특히 開校70周年紀念 3大事業인 高麗大藏經 影印本 刊行과 世界佛教學術會議의 開催 등 建學理念에 立脚한 民族的이며 世界的인 事業을 成功的으로 完遂했읍니다. 이는 오로지 배우면서 싸우는 護國學徒像을 定立한 여러분의 勉學風土가 이러한 大事業의 進行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本人은 確信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在學中에는 各種 國家考試 등에서 前例 없는 榮光의 꽃다발을 母校에 안겨 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本校는 教授·學生의 硏究와 福祉施設에 눈을 돌려 國內大學 屈指의 컴퓨터와 理工系列의 最新機材를 導入하고 圖書館을 整備하는가 하면 福祉會館과 保健센터, 컴퓨터 센터의 完工을 目前에 두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第2校地의 宿願을 착실하게 풀어가고 있는 段階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나 東國은 過去에 安住하지 않고 現實에 결코 滿足하려 하지 않읍니다. 過去 韓國佛教의 護國思想과 大學史의 빛나는 슬기를 오늘의 國家 現實 속에서 되살리고 創造와 開拓의 정신을 誠實하게 追求하는 大學인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産業化의 急進的인 成長으로 重化學工業時代를 맞이했읍니다. 따라서 지난 10年間의 經濟成長과 國力의 增大는 우리 民族을 後進國이라는 自嘲的인 固定觀念으로부터 脫皮하게 하였읍니다. 그러나 物質文明의 發達過程에서는 이미 先進諸國에서 提起되어 온 物質萬能의 思考方式이 深化되고, 精神文化의 輕視風潮가 蔓延하며 自己本位의 極端的인 利己主義가 膨脹하게 됩니다. 物質과 精神의 關係는 언제나 均衡을 維持하는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개발이 調和되고 並行될 때만이 理想的인 人間社會는 實現되는 것입니다. 物質的인 價値의 追求는 그 自體가 目的이 아니라 우리가 人間답게 살기 위한 手段에 不過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第一聲이신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말은 人間의 尊嚴性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人間의 自我가 가장 尊貴한 것임을 闡明하신 것입니다. 佛教에서 强調하는 慈悲思想은 바로 이러한 人間回復을 위한 實踐的 德目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母校인 東國大學은 70有餘年에 걸친 大學史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根據한 人間教育을 建學理念으로 삼아 왔읍니다. 智慧의 體得과 慈悲의 實踐, 그리고 眞理탐구에 不退轉의 精進이야말로 東大精神이며 바로 이 위대한 底力이 卒業生 여러분을 키워온 原動力이라 믿습니다.

참된 知性人은 단순히 지식의 習得과 技術의 세련만으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自己犧牲의 慈悲精神을 內面化하고 실천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이나라의 最高知性으로 成長하기까지 學父母의 精誠과 母校 恩師의 지도, 그리고 國家社會의 가호를 받아 왔음을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두 어깨에 가정과 모교와 國家社會의 恩德에 보답해야 할 막중한 責務가 負荷되었음을 명백히 하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社會人으로서의 期待와 所望에 지혜롭게 副應하여 實利위주의 利己보다는 자기희생적인 봉사를, 나태나 좌절보다는 不退의 精進을, 權利보다는 자기희생을 성실하게 완수하여 國家發展과 人類平和 建設의 영원한 前進에 自身을 바치는 일꾼이 되어줄 것을 衷心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式典에서 명예博士 學位를 받으신 東國譯經院 院長이시며 우리 佛教界의 高僧이신 李耘虛스님과 金容民교수에게 축하의 뜻을 표하고 전체卒業生 여러분의 앞날에 無限한 榮光이 있기를 부처님께 祈願하는 바입니다.

學生指導방안등 論議

春川서 教授練修會 開催

◇효율적인 학생지도방안을 토의하기위한 교수연수회가 지난 14, 15양일간 春川에서 있었다.

효율적인 學生指導를 위한 「教授練修會」가 學生處(처장=鄭允武박사)주관으로 지난 14, 15 양일간에 걸쳐 春川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李瑄根총장및 學處長을 비롯한 각과 주임급 이상의 교수 62명이 참가한 이번 練修會에서는 ①분담지도교수제의 활용방안과 ②써클활동과 관련한 學徒護國團운영의 효율화 방안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李총장은 특강을 통해 『면학분위기의 심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적극적으로 연구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學園의 自律性 향상을 위한 지도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鄭允武학생처장은 『78학년도 학생지도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지도권한에 대한 主任教授의 학생지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안정된 학원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勉學風土조성을 중심으로 한 호국단을 중심으로 導勢力을 형성하고, 수련회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3個 分科로 나뉘어 진 各分科別 討議에서는 ①學科別學會 活動의 復活問題 ②써클 지도교수의 적극적인 指導方案 ③강의실, 실험실습실의 施設補完問題 ④학생行政과 奉仕의 強化 ⑤奬學制度의 改善등이 重點的으로 論議되었다.

이날 分科別 討論主題와 主題報告者는 다음과 같다.

▲第一分科(司會=安思明教授)=分擔指導教授制 活用方案(報告·殷宗鎭교수) ▲第二分科(司會=金鎭鐵교수)=護國團運營의 효율화 방안(報告·이해종교수) ▲第三分科(司會=李文輔교수)=學生福祉施設擴充方案(報告·金昌洙교수)

登錄金 15% 引上

27·28兩日 經理課에 납부

學校當局에서는 78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을 전반적으로 15% 인상하는 한편 經理課에서는 등록기간을 신입생은 20·21일, 재학생은 27·28일 양일간으로 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이번 引上 확정된 등록금 내역은 신입생 입학금 및 재학생 수업료, 기성회비등으로 신입생 등록금은 최고 35만2천6백50원(공대·문리대 일부)이며 최저 32만8천5백50원(불교대·문리대 일부)이다. 또한 재학생 등록금은 최고 25만 3백50원(공대·농대등)에서 최저 22만4천1백50원(불교대·문리대등)이다.

한편 학생들의 등록에 도움이 되어 오던 학자융자는 종전에 실시되어 오던 단기융자와 국민은행에 의한 장기융자가 있다.

장기 융자금 申請

21日부터 學生課서 접수

학생과에서는 78학년도부터 처음실시되는 국민은행 장기융자금 융자신청을 지난 21일부터 받고있다.

총장추천에 의해 졸업후 융자금을 분할상환하게 되어있는 장기융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수는 69명으로 본교에서 26일까지 제출된 서류중 학생과에서 별도 심사하여 그 대상을 선발한다.

융자액은 입학금의 10%이내로 거치기간 4년 동안에는 연금리 15%이며 3년동안 균등상환하게 된다. 원금은 졸업후 3개월마다 납부해야 되며 1인당 최고 1백만원을 초과할수가 없다. 또한 장기융자는 6천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의 보증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채무자, 보증인의 인감증명 각1통,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부증명서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종전과 같이 단기융자는 학과장 추천서와 총학생의 인감증명, 재산세 납세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서울시점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考試班員 47명 선발

全員에 奬學金 지급

考試指導委員會(위원장=崔鍾煥박사)에서는 78학년도 제1학기 考試班 입반시험 합격자 47명의 명단을 지난 1월 30일 발표했다.

지난 12월1일부터 4일까지 총 2백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고시과목별, 학년별로 실시된 고시반입반 시험에는 柳珍光(法·3)·韓相泰(행정·2)군등 47명(司試=16, 行試=12, 外試=1명, 技術考試 1명, 1학년=17)이 합격했다.

앞으로 이들은 考試奬學규정에 의거, 장학금 지급등의 특전을 받게되며, 고시반 운영계획에 따라 지도를 받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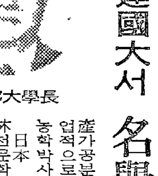
한편 이들의 입반환영식은 崔鍾煥법대학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월11일 考試班전용열람실에서 갖는다.

駐韓外國人對象
韓國文化講座開設

大學院(院長 張庚鶴博士)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韓國文化講座를 오는 3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실시한다.

權寧大 農大學長

建國大서 名譽農博


◇權寧大學長

지난 21일 權寧大農林大學長은 建國大에서 名譽農學博士학위를 받았다.

權박사는 林業試驗場 소장을 거쳐 55년 本校 林學科에 부임하여 77년 農林大學長에 취임했다.

그간 權박사는 「표고버섯재배법」, 「원예전서」등 저서와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 한국농학의 발전에 공헌해 온 공로로 학위를 받았다. 日本 모리오카(盛岡)農林전문학교를 졸업했다.

教授·學生交換協定

經商大와 본大學間에

本校 經商大學과 西獨 본(Bonn)大學부설 「經濟및 交通問題硏究協會」간에는 教授및 學生 교환에 관한 協定을 맺었다.

이 協定은 지난해 12월 본大學주최 「韓·獨간經濟協力方案」에 관한 學術發表會」에 主題發表次 참석한 錢昌源經商大學長과 지난해 本校를 訪問, 學術發表를 한 Fritz Voigt(經濟및 交通問題硏究協會學術會長·본大學 教授)博士간에 맺어진 것으로 協定內容은 ①양 協定者는 앞으로 學術및 人的인 協力을 약속한다. ②양 協定者는 經濟科學, 商學, 交通科學및 開發政策分野의 학술연구과제를 合同研究한다. ③양 協定者는 교수, 조교, 학생의 結果를 교환한다. ④양 협정자는 상호간 招請하며 또한 해당 초청기관(獨逸學術交流奉仕財團, 훔볼트財團, 독일 휘르슈 게마인샤프트)에 의한 招請이 가능토록 協力한다 ⑤각 협정자는 이와 관련하여 자기에게 발생하는 費用을 각자 부담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있다.

한편 교수·학생 교환시기등 구체적인 事項은 오는 3月 來韓예정인 Voigt博士와 相議하여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錢學長은 1월8일 아데나워財團을 訪問, 李瑄根總長의 親書를 전달하고 同財團으로부터 本校生의 西獨유학에 관해 지속적인 特惠를 확약받았다.

梁柱東博士一周忌

李丙疇教授등參拜

故 无涯 梁柱東박사의 1주기 추모식이 지난 4일 12시 여주 梁박사 묘소에서 열렸다.

未亡人 呂順玉여사등 유족과 故人의 제자인 李丙疇교수(국문과교수)와 국문과 교수, 학생, 동문등 60여명이 참석했다.

<3面 추도사 참조>

電算院第3回 修了式

원영섭군 全體 首席

本校 附設電子計算院(院長=錢昌源박사) 제3회 修了式이 지난 18일오전 10시 G건물 5층 特講室에서 열렸다.

錢院長과 내외귀빈, 在學生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修了式에서 錢院長은 『社會에 첫발을 내딛는 수료생들은 그간 닦은 實力을 바탕으로 社會發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백14名의 수료생을 배출한 이번 修了式에서는 평균 92점을 차지한 원영섭(C班)君이 전체수석을 차지했다.

성적우수자와 功勞賞受賞者는 다음과 같다.

▲優等賞=김기남(A班), 허환(B-1), 한경숙(B-1), 원영섭(C班) ▲功勞賞=박동준(B-1·學生會長), 문기동(A·活動部長), 최종희(A·文藝部長), 김석호(B-1), 김유화(C)

「經營 東友會」發足

會長에 趙熙學博士

經營學科 東友會 창립총회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6시30분 시내 부산회관에서 열렸다.

崔載九(國會議員)동창회장, 錢昌源경상대학장, 재학생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경영학과 동우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학과 출신 동문이 발기, 1기인 成百幸(63년졸) 동문을 비롯한 임원을 선출했고 회장에는 趙熙學(63년경영과졸·경영대학원 학감)씨가 선출됐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경영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모금에 대한 토의도 있었다.

보리수

發心과 廻向

불교수행에 있어서 發心과 廻向은 大學教育의 入學과 卒業에도 해당된다. 입학없는 졸업이 있을 수 없듯이, 회향도 발심에서 시작된다. 學問의 길이 곧 求道의 자세라면, 형식적인 입학과 졸업이 아닌 내면적인 발심과 회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학생이 學問의 道場에 입학하고 졸업하지만, 진정한구도 정신으로 발심하고회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다. 발심이란 학문에 대한 태도 結晶이다. 내면적인 철저한 결심없이 학문의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일 뿐이다. 발심이 없는 구도의 길은 진리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입학은 구도자의 발심으로 시작하여 회향의 졸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졸업은 막연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출발은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졸업생들은 출발의 向方을 정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고 있다. 이 끝(卒)이 새로운 그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

회향은 자신이 쌓은 지식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쌓은 지식을 남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佛事에는 끝이라는 말을 쓰지않고 대신 廻向이라는 말을 쓴다. 廻向文이니, 廻向式이니 하는 말은 끝맺는 儀式에서 쓰여지는 말이다.

善行을 남에게 돌리고, 자기의 功德을 남에게 돌린다는 뜻이다. 또 자기의 지금까지의 방향을 돌이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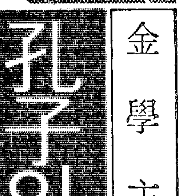
회향의 의미에서 볼때 卒業은 그 業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業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學業에 열중했지만, 이제부터는 學業이 아니라 그 닦은 學業을 바탕으로 한 다른 業으로의 향함이다. 새로운 業(廻向)은 반드시 남을 이롭게하고, 자기개선이라는 대전제가 수반되어야 할것이다.

대학은 해마다 졸업과 입학을 맞는다. 이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용적인 發心과 廻向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졸업과 입학은 회향과 발심의 구도적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權奇悰>

●太陽思想傳記選書●

菊判・高級洋裝
값 2,000원



孔子의 生涯와 思想
金學主 著

늙은 아버지와 젊은 어머니 사이의 非正常的인 관계에서 태어나,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이룩한 孔子!
그는 어떻게 一生을 살았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든가? 그의 思想은 中國史를 통해 어떻게 발전 했으며, 東洋文化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또 現代에 있어서 그 價値는 무엇인가?
孔子를 앎으로써 東洋을 알게되고, 또 우리 自身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겠기에 知性人이라면 누구나 한번 꼭 읽어야 할 必讀書 중의 必讀書!
이책은 어떠한 先入見에도 사로 잡히지 않고, 人間 孔子의 참된 모습을 파헤친 快著이다.
〈内容〉時代背景/孔子의 탄생/학문생활/관리생활/주유열국/교육생활/생활습성/윤리사상/공자의 編著와 經典/晩年과 죽음/弟子列伝/儒家思想의 変転/부록

太陽文化社 서울・西大門區冷泉洞4 電話 73-8629番

●太陽思想傳記選書●

菊判・高級洋裝
값 2,000원

異教徒에서 基督教徒로
林語堂 著
金學主 譯(서울大副教授)

이 책은 著者 林語堂의 일생에 걸친 宗教白書요, 思想白書인 동시에, 그의 文筆家로써 또는 学者로서의 일생을 총결산하고 인간 林語堂의 진실한 면모를 털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宗教人은 물론 모든 지성인들로 하여금 참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内容〉유년기와 청년기/大迂廻의 시작/儒家에 대하여/道家의 山頂에 올라/佛教의 안개를 헤치고/종교에 있어서의 理性/唯物論의 도전/光明의 尊嚴

太陽文化社 서울・서대문・냉천동4 전화: 73-8629번

●太陽思想傳記選書●

体裁 菊判・本文白上紙・高級洋裝・290面・
값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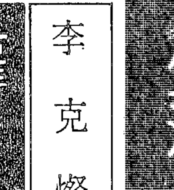
칸트의 生涯와 哲学
崔載喜 著

칸트哲學은 칸트以前의 모든 哲學의 集大成이요 結晶이며 칸트以後의 모든 哲學의 出發点이다. 이러한 칸트의 批判哲學을 그의 生涯와 思索의 자취를 追体驗하며 平易하고 明快하게 叙述한 本書는 著者의 心血을 바친 칸트哲學入門書일 뿐만 아니라 칸트의 恒久平和思想의 現代的意義 및 退溪哲學과의 比較研究마저 곁들임으로써 韓國哲學徒를 위해 方向을 提示해 주는 價値있는 勞作이다.
〈内容〉
生涯와 背景/認識의 理論/実踐理性의 理論/合目的性의 原理/恒久平和의 理念/칸트哲学의 發展과 現代的 意義/칸트哲学과 李滉哲学의 比較

太陽文化社 서울・西大門區冷泉洞4 電話 73-8629

●太陽思想傳記選書●

菊判・高級洋裝
값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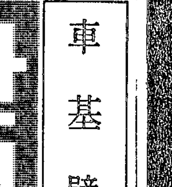
權力과 自由
—라스키의 思想—
李克燦 著

「戰爭과 革命의 時代」인 20세기 前半, 既存의 價値体系가 송두리채 무너진 폐허위에 서서, 人間의 自由를 死守하기 위하여 絶叫하며 激動의 世紀를 살다 간 巨人 해럴드・J・라스키!
빈곤과 無知, 그리고 權力의 노예로서 신음하는 人間을 해방하기 위하여 이를 가로 막는 모든 것을 敵으로 돌리고, 自由를 위한 투쟁에 평생을 몸바친 라스키의 생애를 더듬고 그의 思想을 파헤친 力著.
〈内容〉
라스키의 생애/라스키와 政治的多元主義/自由守護의 條件/라스키와 共產主義/라스키와 計劃的民主主義/自由의 計劃化

太陽文化社 서울・西大門區冷泉洞4 電話 73-8629

●太陽思想傳記選書●

菊判・高級洋裝
값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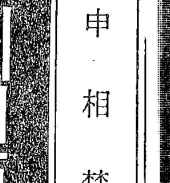
간디 《生涯와 思想》
車基璧 著

「아놀드・토인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간디」라 잘라 말했고, 「로망・롤랑」은 「간디」가 2000년래 인류의 정치에 제일 강력한 운동을 도입한 인물이라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沈滯와 無気力, 絶望感과 虛脫意識 속에서 헤매던 인도 민중을 그토록 각성시켜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발동을 건 간디, 그는 과연 어떠한 인물이었을까? 그의 思想은 무엇이며, 그런 사상은 어떻게 實踐에 옮겨졌을까?

太陽文化社 서울・서대문・냉천동4 電話: 73-8629番

●太陽思想傳記選書●

菊判・高級洋裝
값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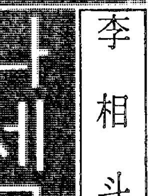
레닌과 러시아革命
申相楚 著

50年前 러시아에서 어찌하여 世界史上 未曾有의 社會主義革命이라는 大變革이 일어났던가, 또 이 革命運動의 第一가는 指導者였던 레닌은 어떤 人間이었으며, 그 思想은 어떻게 形成되고 發展되어 왔던가를 우리나라 指導層에게 알려주는 것이 自由社會体制下에서 國土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國益에 부합되는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自己를 알고 同時에 敵을 안다는 것은 思想戰爭, 政治戰爭에 있어서도 勝利의 必須不可缺한 條件이기 때문이다.
〈内容〉革命家의 햇병아리/쯔아리즘 反對鬪爭과 流刑/亡命과 派争/1905年革命/스톨핀의 反撃과 레닌의 逃亡/分派鬪爭과 党의 分裂/第一次世界大戰 中의 活動/2月革命에서 10月革命으로/브레스트・리토프스크 講和條約/內戰과 國際的干涉/勞組論爭과 新經濟政策/榮光속의 죽음.

太陽文化社 서울・서대문・냉천동4 電話: 73-8629番

●太陽思想傳記選書●

菊版・高級洋裝
값 2,000원



나세르와 아랍革命
李相斗 著

『나는 生涯를 통해 軍人精神을 신봉해 왔다. 軍人의 유일한 의무는 祖國의 국경에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軍隊가 국경에서가 아니라 首都에서 행동하게 된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패한 파루크王政을 뒤엎은 軍事쿠데타는 「우리軍隊의 의무였다」고 나세르는 「革命의哲學」에서 주장했다.
나세르와 靑年將校들이 일으킨 이집트革命은 新生國革命의 典型이며, 政治革命·민족혁명·사회혁명을 동시에 수행한 「三重革命」이었다.
本書는 나세르와 사다트 및 세계각국 指導者와의 관계, 나세르主義·아랍民族主義, 中東에얽힌 强大國의 利害관계를 예리하게 파헤친 力著다.
主要內容 팔레스티나戰爭의 敎訓/革命前夜의 「自由將校団」활동/나기브將軍과 나세르中領의 對決/非同盟主義와 나세르의 政治曲藝/「6日戰爭」과 아메르元帥의 自殺/나세르路線과 바트党路線/「아랍社會主義 聯合」의 一党体制/나세르의 經濟政策과 그 파탄/「脫나세르」政策과 그 余波.

太陽文化社 서울・서대문・냉천동4 전화: 73-8629번

創造的인 社會人

—卒業은 實踐的 敎育의 始作—

大學敎育의 날이 왔다。대학을 졸업하는 날의 感懷는 한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은 한 나라의 희망이요 힘이다。

그러나 사실상 실제로 산 實踐的 敎育은 대학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학교에서 얻어지는 知識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公式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곧바로 社會에 어느만큼 적용이 가능한가는 문제는 사회에 나아가 실제로 體驗해 보아야 한다。

현대는 統計·確率의 時代라고도 한다。物理學에는 不確定性 原理라는 이론이 있거니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반드시 수학적인 公式만으로 해결되는 세계가 아니다。

敎育은 통하여 各自의 전공에 따라 여러가지 敎科目을 이수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學校안에 있어서의 理論敎育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나 사실상 실제로 산 實踐的 敎育은 학교부터 시작되는 것이다。학교에서 얻어지는 知識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곧바로 社會에 어느만큼 적용이 가능한가는 문제는 사회에 나아가 실제로 體驗해 보아야 한다。

현대는 統計·確率의 時代라고도 한다。物理學에는 不確定性 原理라는 이론이 있거니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반드시 수학적인 公式만으로 해결되는 세계가아니다。

敎育은 통하여 各自의 전공에 따라 여러가지 敎科目을 이수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學校안에 있어서의 理論敎育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나 사실상 실제로 산 實踐的 敎育은 학교부터 시작되는 것이다。학교에서 얻어지는 知識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公式

新入生 合格者 發表

平均 競爭率 2.2對 1

首席合格 趙成鳳(經濟)君

6日, 體育館서 入學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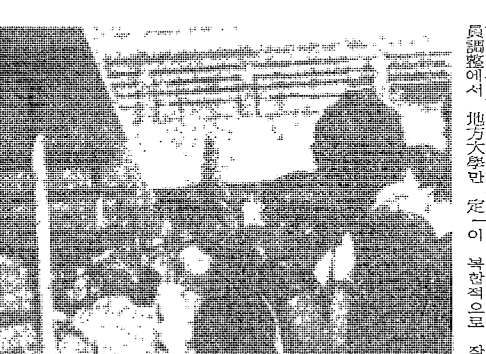
東岳의 새주인을 選拔하는 1978學年度 新入生 入學試驗이 지난 9, 10 양일간에 걸쳐 實施, 17일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經商大 經濟科를 지원한 趙成鳳(19·發正高卒)군이 수석합격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6일 마감했던 원서접수에는 44개학과 1천3백10명 모집에 총2천8백44명이 응시, 평균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평균경쟁률 3.5대1보다는 떨어지는 비율로써 文敎部의 大學定員調整에서 地方大學만 定員이 增員된 점과 작년도 본교 입시경쟁률이 후기대학에서 가장 높았던 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학과별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經商大 會計學科로 30명 정원에 1백26명이 지원, 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올해 새로 개편 신설된 都市行政學科는 40명 모집에 84명이 지원 2.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예년과는 달리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영어·수학의 3과목과 體能·實技系 학과는 실기과목으로 실시된 입학시험은 8일 예비소집을 거쳐 9일 G고사장 건물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실시됐다. 합격자들은 20·21 양일간에 걸쳐 등록을 모두 마치고 3월6일 오전 11시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갖는다. 또한 신체검사일정은 7일부터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중에 교양학부에서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입학시험의 각 단과대학별 수석합격자는 다음과 같으며 학과별 커트라인은 추후 발표한다.

▲佛敎大學=尹用男(철학과·대전고) ▲文理科大學=金華中(영문과·전주고) ▲法政大學=金東雨(法學科·서울고) ▲經商大學=趙成鳳(經濟科·양정고) ▲農林大學=李庚燁(農經科·대신고) ▲工科大學=李太右(전자공학과·전주고) ▲師範大學=宣鍾燮(교육학과·南岡高) ▲2部大=申相仁(工經科·부산고).



◇2·2대1의 경쟁률을 보인가운데 지난 17日合格者發表가 있었다.

奬學生名單發表

박문기君등 1백30名

學生處(處長=鄭允武박사)에서는 지난 23일 78學年度 第1학기 首席및 優等奬學金 수혜택자 1백30명을 확정, 발표했다.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는 수석장학생은 총45명, 수업료 반액의 수혜택을 받는 우등장학생은 85명으로 장학금은 77학년도 2학기 成績을 기준으로 각 학과에서 최고성적을 얻은 학생을 선발한 것이다. 또한 우등장학생은 작년 10월에 실시된 장학생 選拔試驗의 성적과 77학년도 1학기성적을 각각 50%로 반영하여 선발했다.

한편 對外奬學金 受惠者名單은 選拔이 끝나는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당국에서는 東國奬學會(가칭)가 발족하는대로 學生處에서 관장하던 장학생 선발을 전담하도록 했다. 首席및 優等奬學生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首席奬學生

◇佛敎大學 ▲최중석(불교·4) ▲정승석(인철·4) ▲양은덕(철학·4) ▲김상균(미술·4) ▲이상구(승가·3)

◇文理科大學 ▲정조채(국문·4) ▲유태현(영문·3) ▲김형진(사학·4) ▲문석봉(연영·4) ▲박문기(수학·4) ▲소향섭(물리·4) ▲황수명(화학·3) ▲주홍섭(통계·3)

◇法政大學 ▲유인출(법학·4) ▲박진건(정외·4) ▲심우섭(행정·4) ▲심웅석(경행·4)

◇經商大學 ▲김지문(경제·4) ▲이두원(무역·4) ▲하헌국(경영·4) ▲정시희(전산·4) ▲김부기(회계·2)

◇農林大學 ▲김연락(농학·4) ▲김승호(임학·4) ▲이영재(농경·4) ▲김진택(농생·4) ▲강태호(조경·3)

◇工科大學 ▲최용선(전자공·4) ▲권대우(전기공·4) ▲정만모(토목공·2) ▲이준택(건축·3) ▲박장래(화공·4) ▲김미영(식공·2) ▲이병수(공경·4)

◇師範大學 ▲정해숙(교육·3) ▲조익선(국교·2) ▲곽영민(사교·4) ▲남규희(국사교·2) ▲김효성(수교·3) ▲임혜숙(과교·4) ▲임창수(체교·4) ▲전경자(가교·3)

◇2부대학 ▲최영절(회계·2) ▲이영재(전산·2) ▲백윤실(전산·3)

<4面에 계속>

學問의 世界

專攻으로 가는 길 <18>

그 크신 지혜와 지식등을 모두 얻어내지 못한 한스러움이

无涯 梁柱東 선생님 여읜지 한돌

선생님 가신지 한해, 지난 삼백 예순닷새 어느 하루를 선생님을 그리지 아니한 날이 있었겠읍니까. 그때는 황망하여 여기 시신을 모시기에 바빠 미처 깨닫지 못했으나 한돌을 셈하는 오늘에 이르러, 저 산마루에 질펀한 눈더미처럼 뉘우쳐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선생님 살아계신 동안에 자주 찾아뵙고 진강 격정을 해드리지 못했음이 한이요, 연달아 선생님 지니고 계신지혜와 지식과 큰 덕을 모두얻어내지 못한채선생님을 여읜 한스러움이 그것입니다.

이 한스러움으로 하여, 저 바다같이 넓은 학문의 대양은 두고라도, 무시로 연찬해 마지않으시던 선생님 면려의 훈내 터럭인들 본받는 제자가 오늘에 없고, 젊어 또렷이 빛나던 선생님의 그 민족정기를 오늘에 뼈대 세울 바이 없으니, 잔디가 여태 뿌리 내리지 않는 선생님 무덤 앞에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읍니까.

무덤 앞에 빗돌을 세워 이제 와서 선생님 은덕을 기린다 한들, 선생님 훈도를 입은 제자중에 선생님께서 무릎을 손수 치실만한 사람이 나타날만 하겠읍니까. 어찌 선생님 직제자 뿐이겠읍니까. 살아남은 자가 온통 제자인데다가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에 이르기까지 나라 안팎에교수로, 작가로, 문화지도자로 종사하면서 각기 가 선생님의 그 성해를 흉내내어 향가를, 가요를, 시를, 문학을 가르치고 들먹이고함이 오래건만, 여태 선생님의 발뒷꿈치를 따를 바이 없으니 이 또한 슬픈 일이 아니겠읍니까.

선생님, 그곳 하늘은 지금 남빛입니까, 옥빛입니까, 아니면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비취빛입니까. 거기에는 선생님을 괴롭혀드린 그 금권도 난무하지 않겠지요. 선생님을 활달하게 말씀하게 하시고 또 웃으시게 해주고 있겠지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던 위당도 두자미도 김성탄도 함수랭도 엘리옷트도 함께 모였겠지요. 거기에는 그렇게 지성의 광장이 벌어졌겠지요. 맥주라도 한잔 시원하게 잡수시고 가락을 높여 조선의 맥박을 읊으시고 흔쾌하게 즐기시다가 선생님, 그렇게 쉬십시오.

그리고 저 밤하늘에 이는 별빛같이 혹여 선생님 그쪽에서도 잠못드시는 밤이 있으시면 저이 잠을 깨워주십시오. 깨침이 없는 이 무명의 바다에 혼곤히 빠져있는 제자들 어깨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오늘의 이 입춘추위가 선생님의 매운 채찍질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추위마저 선생님 훈훈하신입김으로 흩지 않은 것으로 느껴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못다 노나주신 지혜를 봄날 햇살처럼 받아 안고 길길이 자라게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선생님 오는 봄에는 그 키만큼은 더 큰 절을 선생님 무덤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을 여읜지 한해뒤 1978년 2월초나흘 문하생 일동을 대신하여 김장호가 엎드려 절합니다.―

金長好 <師範大敎授>

◇생전의 无涯 梁柱東博士

電子計算學

安思明

<經商大敎授>

綜合的 知識을 培養해야

周邊學問과 밀접한 紐帶關係가져

一、電子計算學의 性格

電子計算學 (Computer Science)은 아직 새로운 學問으로서 1962년에 構成된 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C^3S (Curriculum Committee on Computer Science)의 研究結果의 영향을 크게 받아 1963년 부터 美國의 大學에서 計算科學으로서 電子計算學을 專攻하는 學科가 新設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부터 大學에 電子計算學科가 設置되었다. 本大學에서는 1972년에 設置하였다.

電子計算學은 「情報 (Information)」와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Computer Science 외에 Information Science,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systems science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그것은 요즈음 우리가 「情報의 홍수 時代」라고 할만치 여러 분야에서 많은 情報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現代社會를 情報産業時代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와같이 많은 情報를 어떻게 分析하고 處理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떤 시스템 (System)을 理解하고 發展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電子計算學 (Computer science)은 무엇을 研究하는 學問인가? 이에대한 定義는 自然的으로 存在하거나 人爲的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시스템에서 發生하는 모든 情報의 構造 (structure) 傳達 (transmission) 및 變形 (transformation)에 관한것을 研究하는 學問으로서 情報의 표기법 (Representation and coding)과 컴퓨터와 같은 情報處理機械에 관한 理論과 應用을 공부하는 學問이라 하겠다.

여기서 情報라 함은 수치, 문자, 그림, 언어등 우리가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定義로 볼때 電子計算學은 단지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거나 어느 1部門에의 응용만을 가르치는 學問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서 電子計算學 교육은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데에 중점을 두는것이 아니라 電子計算學의 專攻 課程을 履修함으로써 프로그래밍에 관한 知識이 自然히 부산물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二、電子計算學의 構造

요즈음의 學問은 어느 한 분야만 알아서 되는것이 아니고 綜合的 知識을 培養해야 한다. 그러므로 電子計算學을 專攻하는데는 그 學問的 構造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보겠다. 基礎科目, 核心科目 그리고 諸般의 專攻科目을 活用, 즉 전공과목을 履修함으로써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周邊科目, 혹은 補助科目이다.

기초과목으로서는 英語와 應用數學이 아주 重要하며 確率과 統計도한 중요하다. 核心科目으로서는 電子計算機構造 (Computer Design and Organization) 資料構造 (Data Structure) 프로그래밍言語 (Programming Languages) Systems Programming 및 數値解析 (Numerical Mathematics) 등이다. 電子計算機構造는 計算機 自體의 구조및 設計에 따른 理論을 익혀 하아드웨어 (Hardware)와 소프트웨어 (Software)의 상호유대관계를 익힘으로써 시스템의 補完 및 設計能力을 培養할 수 있고 資料構造에서는 記憶裝置에서의 資料의 表現方法, 資料의 貯藏方法 資料의 檢索方法, 資料의 設計및 管理技法등 諸般의 理論이나 능력을 培養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言語에서는 Assembler, FORTRAN, COBOL, PL/1 등의 諸言語의 理論및 프로그래밍 作成技法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周邊科目―즉, 補助科目으로서는 應用統計, 電子回路, 經營情報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시스템分析, Operating System, Operations Research, Simulation, Microprocessor and computer 등이 重要한 補助科目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電子計算學의 구조로 보아서 이러한 計算科學을 전공하려면 應用數學의 諸般理論의 기초지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 英語에 대한 제반의 실력이 없이는 컴퓨터를 전공하였다고 해도 實際에 있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가지의 자료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것이다. 이것은 컴퓨터에서 Hardware및 Software가 美國에서부터 생산되어 발전하여 왔고 또 美國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情報産業時代에서 컴퓨터, 즉 電子計算學을 전공하는 학생은 應用分野로서 다시말해 副專攻으로 經營學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좋고 電子計算學을 전공하지 않는 理工系및 經商系 학생은 副專攻으로 電子計算學분야를 應用分野로서 공부하는것이 대단히 좋다고보겠다.

三、電子計算學의 課題

최근에 와서 美國의 대학에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科의의식이 차차로 「Interdisciplinary」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 즉 이것은 요즈음의 학문은 어느 한 분야만 알아서 되는것이 아니고 綜合的 지식을 배양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와 같이 여러가지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電子計算學의 주어진 과제는 크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고 보겠다.

①情報의 構造와 처리 이것은 즉 정보의 表技法 프로그램構造및 資料構造와 이들정보의 변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및 개발이다.

②情報處理시스템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한 이론및 연구 및 개발이다. 오늘날 컴퓨터의 활용면에서 여러가지 분야의 經濟性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한 연구는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계속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方法論 (Methodologies) 이것은 컴퓨터를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의 연구및 개발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과제가 모든 電子計算學 분야에서 연구및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졸업가話題

불구딛고선 意志의 4年 ―徐容範(國文)君과

소아마비-東岳의 4個星霜

文學으로 救援, 小說家 志望

밝은웃음 항상 잃지않아

小兒痲痺로 왼쪽다리를 절면서 4개星霜에 걸쳐 가파른 東岳의 언덕길을 오르내린 졸업생이 있다. 25일로 영광의 文學士가 된 徐容範(國文科)군―. 두살때 발병한 소아마비는 걸음마도 제대로 익히기 전에 「뜀박질할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 왼쪽다리의 불구때문에 文學을 하게 되었고 문학을 통하여 정신적인 구원을 받은것 같아 오히려 神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중3때까지 생명을 건 3차례의 대수술을 받았던 그는 네번째 다시사는 셈. 그래서 그는 일생을 문학의 길을 외곬수로 걷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명한 그늘을 길게 남기는 그웃음과 집념은 그를 결코 헛되이 지치게는 하지 않는것 같다.

『신체적 결함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지않는 다른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읍니다.』

자신의 부자유를 오히려 삶의 고뇌로 승화시킨 그는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성실한 작가가 되겠다고 한다.

『무쇠덩어리를 끌칼로 깎아내어 작품을 만들어냈다던 조각가와도 같이, 모든 생활을 문학으로 집중시키는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문학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고지 쓰는 자세까지도 문학수업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文學的 才能은 본교 국문과 1학년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京畿日報주최 대학생 봉사활동 手記현상모집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한 것이 그 하나. 3학년때는 小說 「쉰 목소리들의 合唱」으로 제14회 東大新聞社 학술상 創作文學분야 본상을 수상한바 있는 徐군은 졸업후에도 계속 창작에 정진하겠다고. 이미 忠南 당진 송악高校 敎師로 내정되어 새학기부터 敎職生活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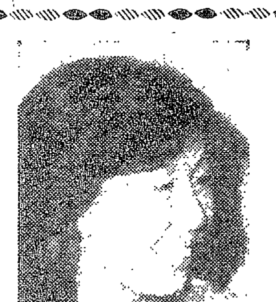
『앞으로 3년간 칼을 갈겠습니다. 그후에…』 배우는 자세와 작가로서의 소양을 계속 쌓아가겠다고.

그는 東國文學에 대해서도 『우리 東國文學의 침체를 걱정하는 학생은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책임을 느끼는 학생은 적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넘세를 잃지않으면서 정진한다면 동국문학의 앞날은 밝은 것이라며,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고 덧붙인다.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가 아닌 것이 다행스럽다며 담배를 꺼내무는 그는, 결코 우울하지 않은 예의 그웃음을 지어보인다. <仁>

휴게실

首席卒業生 ―曺明心(印哲)양과



4年間 장학금 받은 才媛

印度 유학計劃, 將來엔 敎壇生活

『전혀 뜻밖이었어요』 日刊新聞의 보도를 보신 고교(德成女高)은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수석졸업의 소식을 알았다는 曺明心(印哲·4)양은 「어느날 아침 일어나보니 유명인이 되어 있더라」고 환한 웃음 짓는다.

全學年 평균점 91·82―평소에 교수님과 학문적 대화를 많이 가졌던 것이 首席졸업에 큰 도움이 된것 같다고 한다. 또한 학업에 지장이 될까봐 아르바이트까지 못하게 하며 뒷받침 해주신 아버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印哲科는 영어 이외에도 3개外國語(산스크리스트語·파리語·西藏語)를 마스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각고의 精進끝에 차지한 영광임을 말해 준다. 4년간 한번도 奬學生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재원이고보면 「실력껏하라」는 家訓대로 「실력껏 따낸 것」이라는 말이 실감있게 들린다.

대학생활은 주로 도서관이나 연구실에서 보냈으나 축제 때에는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할때 하고놀때 노는派』. 科友외엔 친구가 별로 없어 폭넓은 대인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유감이란다.

曺양은 印哲科의 유일한 홍일점. 평소 공부에만 열중하다 보니 남학생들로부터 「中性」이란 별명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별명대로 「책하고만 결혼」할 예정이라며 학문의 매력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을것 같단다.

지난 22일 치른 고시의 결과에 따라 「인도철학의 본고장인 인도 「델리」大로 유학할 예정. 석사학위 수료후엔 英國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귀국해서 모교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싶다고 부푼 미래를 펼쳐보인다.

『대학교육은 전문교육이라고 하지만 고교교육이 비정상적인 우리 나라의 대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격을 닦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의미에서 「참인간」을 만드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인도철학은 모든 학생이 전공으로 꼭 알아야 할 학문이라며 우리 東國人만이라도 『宗立學校의 理念』을 살려 『전공분야 밖에 모르는 「유식한 무식군」이 되지 말아 줬으면』 한다고 후배들에게 폭넓은 공부를 당부한다.

2학년때까지 佛敎合唱團에서 소프라노로 활약, 틈나는대로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는게 취미라며 은근히 노래솜씨를 자랑(?)해 보인다.

▲曺希在씨와 李小順씨의 1남2녀중 막내. ▲54년 서울産 ▲73년 德成女高卒. <萬>

해전무대

科友끼리 頂上다툼 형편

각계 성원에 考試班 활기

○…本校 복싱部의 金貞喆(경행·3)君은 지난 19일 폐막된 아시아 世界選手權 선발 2차전에 出戰하여 우승, 무릎부상으로 시달렸던 오랜 슬럼프에서 깨끗이 벗어나 話題를 모았다.

金君은 전 경기를 통해 K·O, RSC, RET, 판정등 복싱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 이긴 셈. 밴텀級으로 체급을 올린 후, 화려하게 再데뷔한 金君의 기량을 관계자들은 높이 평가하고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科友인 黃哲淳선수와의 一戰이 불가피한듯. 단 2명의 선수로 복싱部를 꾸려나가고 있는 本校가 그나마 같은 체급에서 頂上을 놓고 겨룰수 밖에 없는 것도 運命인가?

○…그간 고시 불모지대(?)의 오명을 씻고 권토중래, 작년 司·行試에 9명이 合格하고 52名의 후속부대가 후속타를 노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同門등 각계의 성원도 계속 답지. 李總長은 『고시반은 그간 다져놓은 기반을 토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고시반의 도서 및 자료구입에 특별배려를 하는가 하면 도서관측에서는 고시반 전용열람실을 넓고 쾌적한 2층으로 옮겨주기도. 또한 본교 출신 국회의원들은 책장을 기증하는등 지원에 열을 올리고 법조계 선배들은 후원회조직을 하기까지. 또한 동진회(61·법과동우회)에서는 고시반원의 영양관리를 위해 불고기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번 새로 入班한 L군은 『춥고 긴 겨울방학도 고시반만은 뜨거운 집념의 현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을 合格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

○…지난 겨울방학엔 설악산등반 조난사건등 사고로 귀한 東國人을 잃어야하는 슬픔을 우리모두가 맛보았다. 더욱 안타까운일은 지난 1월12일밤 교통사고로 숨진 辛演基(전자·3)군. 그는 관자촌에 노부모를 모신 외아들. 더구나 보상금이 단순노무자 기준으로 지급되자 분노한 科友들은 『어째서 대학생이 단순노무자로 취급받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나눠갖자」는 플랭카드를 들고 사고회사인 금성운수 사무실로 찾아가 「인격적 대우」를 요구했다고. 합의를 못한 채 9일동안 적십자병원의 외로운 빈소를 지키던 科友들은 소주에 울분을 섞어 삼키며 장지인 벽제로 향했다고.

동아제약시리즈② 중앙연구소

"藥과 휴머니즘"

휴머니즘은 인간주의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철학입니다.
휴머니즘의 具現은
인류 생존의 安寧입니다.

藥과 휴머니즘 ――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의 命題입니다.
우리는
한알의 藥에도

생명의 猥敬을 담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의지를 바칩니다.

건강을 지키는 동아제약

총력안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동아제약 중앙연구소는 지금이 21세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성 藥物에 대한 흰쥐의 反應」

崔濬甲-洪琉利-李貞子팀의 졸업논문

소주 투입 98시간내 致死

담배는 心臟搏動과 呼吸에만 반응

心臟의 과도 흥분과 自律性運動 촉진

체중 60kg의 정상인이 하루에 소주 4홉을 마시면 치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실험결과로 밝혀져 애주가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은 崔濬甲(農生科)·洪琉利(科敎科)·李貞子(〃)등이 실험 조사한「嗜好性 藥物에 대한 흰쥐의 호흡과 心搏의 변화에 관하여」(지도교수·孔泰勳박사)라는 졸업논문에 의해 밝혀졌다.

이 論文은 기호성 약물인 커피의 카페인과 담배의 니코틴, 麻藥類의 코데눔, 酒類의 알콜등을 소재로 하여 흰쥐의 心臟搏動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기호성 약물은 心筋을 흥분시키며 自發性運動을 촉진시킨다.

카페인은 冠狀動脈을 통하여 혈액의 유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심근과 大腦皮質을 흥분시킨다. 또한 자발성운동을 촉진시켜 利尿효과를 유발하는 작용을한다. 코데눔은 鎭咳 진통제 또는 호흡진정제로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제로 이용된다. 또한 담배는 이실험에서는「거북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약 1·93%의 니코틴을 함유하고있다. 화약성분으로서는 질소 황산 페놀 산화비소등이 포함돼 있어서 역시 심장에 대해서 복잡한 흥분제로작용한다. 알콜은 흥분을 항진(亢進)시키지만 운동을지연시키며, 마취적 수면을유발한다. 이실험에서는「眞露소주」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호성 약품을 흰 쥐에게 極量과 그倍量에 해당하는 양을 각각 근육주사하였더니 대부분 죽고 말았다는 놀라운사실을 이 논문은 보고하고 있다.

◇하루에 소주는 4홉을 마시면 치사할수도있으나, 담배는 40개피를 피워도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

<투약후 사망시간>

사망시간 / 약품종류		50M	5H	24H	48H	96H
카페인	I		○			
	II	○				
코데눔	I					
	II			○		
니코틴	I					
	II					
알콜	I					○
	II				○	

※I : 極量이 筋注된 쥐
II : 극량의 배량이 근주된 쥐.

①알콜의 효과

이 실험에서는 1일 眞露소주(25%) 2병, 또는 4병을 마시는 양을 쥐의 체중비로 환산하여 각각 근육주사하였다. 그 결과 쥐는 96시간과 48시간에 각각 사망하였다.

약물처리후 즉시부터 쥐는 호흡과 심박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알콜에 의한 과도의 흥분상태와 신경중추에 대한 마취적 수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내지 15분경에는 호흡과 심박이 일시적으로 정상화되어지는 현상이 보이기는 한다. 이는 알콜의 체내 분해에 의한 생리적 현상이지만, 끝내 쥐는 極量효과에 의해 사망하고말았다.

②카페인의 효과

커피에 함유돼 있는 카페인은 인체에서 1회에0·5mg, 1일에 1·5mg이 極量으로 되어있다. 이를 체중비로 환산하면 70내지 80g의 쥐에게 극량에 해당하는 0·0005mg과 그倍量을 1cc의 증류수에 희석하여 근육주사를 했다.

그 결과 極量의 배량을 筋注한 쥐는 약물처리 후 50分 후에 사망하였고, 極量을 주입한 쥐는 5시간후에 사망하였다. 그러한 현상은 呼吸中樞神經이 과도히 흥분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이 논문은 밝히고있다. 근주한뒤 5내지 10분사이에서는 호흡수가 有意性 증가를 보이다가, 15분정도가 경과하자 肝과 콩팥에 의한 解毒과 利尿作用으로 호흡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20분쯤 지나 다시 경과하는 현상은 사망전의 카페인 毒性에 의해 호흡이 亢進된 것으로 믿어진다.

③코데눔의 효과

코데눔의 인체에 대한 극량인 1회 1백mg, 1일 3백mg을 체중비로 환산하여 극량과 그 배량을 쥐에 주입했다. 그 결과 배량 처리했을 때에만 쥐가 24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극량처리했을 때는 그 후 5분까지 심박이 유의성 증가를 보이다가 코데눔이 간에서 급속히 분해, 배출되기 때문에 곧 정상회복이 가능했다. 배량 처리 시에는 15분 후부터 심박수와 호흡수가 사망 전까지 유의성 증가했다. 이 현상은 극량을 초과한 코데눔의毒性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④니코틴의 효과

「거북선」담배를 60kg 체중의 사람이 1일 20개피와 40개피를 피우는 효과를 실험하고 있다. 담배 20개피의 즙액을 만들어 체중비로 환산하여 근육주사한 결과, 쥐는 심박과 호흡에만 반응을 보이고 있을뿐 사망하지는 않았다.

처리뒤 20분부터 호흡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심박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담배의 특성인 一過性의 無呼吸狀態가 회복됨과 동시에 호흡수가 증가하는 추세와, 쥐의 니코틴에 대한 體外排世作用(콩팥·땀·Rhodan Hormone 등)을 말하여 주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政〉

꽃人事

一未堂님「안녕」을 빌며

兪漢根

떠돌이되어
큰 새 타고 길 떠나는
노인네 다녀오시라고
「잘」「무사히」다녀오시라고
장미꽃 몇 송이 국화 몇 송이
웃음이 다소곳합니다.

그는 한번도
먼 나라 나들이를 못한
한국의 노인네
계절 따라 수줍음 더해 가는
곰방대 노인네
아프리카로 원족가는 들뜸과 불안이
가득한 꽃밭 소년.

장미꽃 몇 송이는
그의 가슴에 꽂히여
발병나 더딘 길 재촉하고
국화 몇 송인
잠시 떠나온 冬天을 생각키우고
그렇게 떠돌이도 같이 떠돌다
알라스카 소녀 머리에 꽂힐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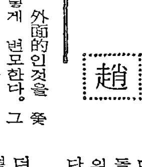
봄부터 明年 가을까지도
남은
장미꽃 송송이는「잘」을
국화는「무사히」만을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기다릴 겁니다.

〈文理大 國文科〉

卒業수상 — 우리의 言語와 몸짓은 다 어디가고

작은 主演群의 행세

趙錫奎



졸업 소감을 부탁받은 후에야 비로소 나는 어「졸업」이라는 것을 놓고 천천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게되었다. 졸업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다.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속해지는 사회에 대해, 혹은 나의 후배, 동료들에게 내가 할 말은, 해야될 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당혹감에 빠지고마는 것이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졸업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잊고 그저 要式行為로써만의「졸업」이라는 의미를 인식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다 청년 시절을 인생의 꽃이라고들 얘기한다. 아름다우며 건강한 세대이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우리는 이 커다란 世界의 무대 속에서 비록 작은 한번이나마 主演群으로서 행세해왔다. 우리는 자유스러웠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의 言語와 우리의 몸짓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다. 때론 지탄을 받고 때론 갈채를 받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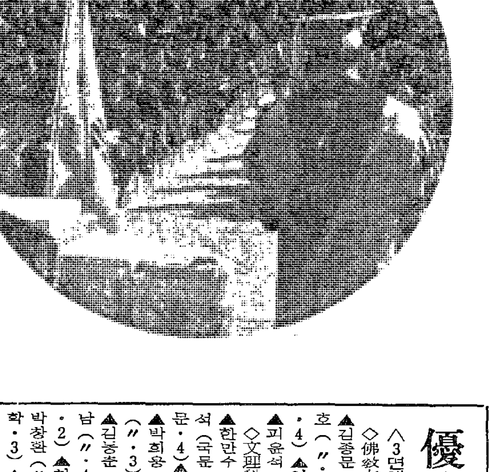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인공이었는가. 정말로 방방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을까. 알고 보면 우리의 주연이라는 것이 다방의 얼굴 마담 같은것이 아니었는지, 또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속에서 길들여진 산짐승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인간은 발전한다고 했던가, 변천한다고 했던가. 「수학적 명제가 불변이라고 믿는 수학자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것 같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율배반속에서 자라오고 길들여지고 했던 것 같다. 사회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항상 兩面性을 지니고 수시로 변한다. 그리고 사회는 Pe-sona의 人格만을 요구하고 그것을 재빨리 물질적 가치로 환산시켜 버린다. 우리는 그것을 그 중오했으나 한편으로는 그것을 동경한다. 나는 혹은 대다수의 우리는 內面의 순수한 욕구를 저버리고 外面的인것을 쫓아 그렇게 변모한다. 그것이 나의 테마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직장엘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곧 사회에 들어하는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된다. 어느새 나는 봉투를 들고 다니는일에 익숙해져 있으며, 퇴근 길의 지하철에서 내일 아침 신문을 훑어보는데도 이미 능숙해 졌다. 시내버스의 어두운 뒷좌석에서 흔들리며 가기도 한다. 어떤 때 나는 바가가 나를 우울하게 바라보고 있는것을느낀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물러날때까지 그대로둔다. 학교 앞 아줌마네 작은 술청에서 마시던 몇잔의 술과 땀 흘리게 하던 라면, 그리고 幼年을 돌이켜내는 듯한 누군가의 노랫소리도 생각해낸다.

지나간 일이 중요치않더라도 이런 일들을 그렇게 두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 중의 하나라고생각한다. 미래란 지하철에서 내일 아침 신문을 읽는 것과는 다른 일이리라. 당당하게만 세상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변모해 가는 것에 질책만을 보낼때는 지났는지도모른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자유를 구가할 일이다.

나는 이미 몇번 넘어졌다. 앞으로는 더 많이 넘어지겠지.「人因而倒者因地而起」라고 하지 않는가. 「내자신에게 충실하기위해 흔들리며 나는간다」고. 그러나 눈은 맑게뜨고, 그것이 첫 발 디디는 나의 자격이고 양심이다. 이 말 밖에는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文理大 國文科卒〉



끝까지 뛰었다

洪思誠

卒業—이렇게 써놓고보니 여러가지 감회가 벅차다. 靑雲의 꿈을 안고 大學에 첫발을 내딛은지 어언 7년. 같이 입학했던 同期들은 벌써 졸업을하여 저마다 社會一線에서 자리를 굳혀가고있는데 군대3년을 마치고 늦게야 대학문을 나서려니 그저 어정쩡하고 겸연쩍기만 하다.

그래도 군대엘 가기전만해도 좋았었다. 강의실과 도서관을 안방에서 사랑방 넘나들듯 쫓아 다녔고, 그곳에서 높은 理想과 진실의 탐구에 열중했었다. 캠퍼스 어느구석에 가도 아는 얼굴이 있었고 그들과 자유와 正義에 대해 주먹을 쥐고 토론했고 행동했었다. 담배연기 자욱한 다방에서도 당구장, 술집, 버스속에서도 인생과 사랑과 철학에 대해서 열심히 사색하고 읽고 썼다.

그런데 군대엘 갔다오면서 나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배워왔고 군대에서 배워온만큼 대학생활의 그많은 특전, 이를테면 젊은이라든가 낭만이라든가 하는 듣기만해도 황홀해지는 것들을 잃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차츰 현실의 늪에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대학생활은 나의 터무니 없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무 일찍 막을 내리고 만 것이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 현실이란 말을 무슨 가시면류관처럼 쓰고 다니다가 이제 늦게사 대학문을 나서는 주제에「영광스럽달연」이란 얘시당초 맞지 않는 말인지도 모른다.

생각나는 일이 있다. 국민학교에 다닐때, 나는 키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건정하게 컸다. 그러나 키에 비해 달리기라면 늘 꼴등이었다. 하다못해 한해에 한번씩 만국기의 펄럭임아래서 벌어지는 운동회에서 공책한권, 연필 한자루 받아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내게도 한번의 기회는 왔다. 6학년때, 5~6학년들만 뛰는 2km 마라톤 경주에 나가게된 것이다. 단거리에서는 늘 졌지만 장거리에서야 나도 等數에 들수있겠지, 하는 자신을 갖고 마라톤 경주에 출전했다.

땅! 출발을 알리는 신호를 들으며 나는 1백여명의 아이들과함께 1등을 향해 뛰었다. 아, 그러나 이무슨 괴변이란 말인가. 반환점을 채 못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나를 앞질러 뛰어갔다. 내가 반환점을 돌때 내 뒤에는 겨우 열명 밖에 뛰는 아이들이 없었다. 나는 죽을힘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뛰었다. 그러나 벌써 나를 앞질러 간 아이들은 50도 넘었다. 그나마 뛰어오면서 보니, 이미 入賞圈에서 떨어진 아이들은 아예 중간에서 기권을 했는지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혼자뛰었다.

내가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1등부터 20등까지 시상이 끝나고 다른 경기가 진행중에있었다. 혼자 트랙에 들어선 꼴찌선수. 사람들은뉘게야 허덕허덕 뛰어들어온 나를 향해 일시에 와르르 웃었고, 나는 그웃음소리를 박수삼아 결승테이프도 없는 결승점에 뛰어 들었다. 아무도 나를 賞주는 사람은 없었다. 분하고 창피했다. 울고 싶었다.

그때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담임선생님이였다.

『괜찮아, 산다는것은 마라톤보다 더 긴 장거리경주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잘했다. 참 잘했어.』

말뜻이야 알쏭달쏭 했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에 울음이 터지려고했으나 나는 끝내 입술을 깨물고 울지 않았다. 절대 울지 않았다.

그렇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은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뛰는 것이 중요한것이다. 그렇다면 내 졸업도 늦은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4년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감사합니다. 〈佛敎大 佛敎科卒〉

優等장학생 명단

〈3면에서계속〉

◇佛敎大學 ▲김종문(불교·2)▲윤두호(〃·4)▲권만준(〃·4)▲임순옥(인철·3)▲피윤석(미술·4)

◇文理科大學 ▲한만수(국문·2)▲고재석(국문·4)▲김영취(국문·4)▲서동석(영문·2)▲박희용(〃·2)▲이구옥(〃·3)▲김혜경(〃·4)▲김능춘(사학·2)▲김춘남(〃·4)▲김필규(수학·2)▲최병일(〃·3)▲박창환(〃·4)▲김교필(화학·3)▲명노원(〃·3)▲한상록(물리·2)▲임춘기(통계·2)▲이번제(〃·3)▲김성옥(〃·3)

◇法政大學 ▲이상익(법학·2)▲황수완(〃·3)▲손섭(〃·3)▲정민배(〃·4)▲강정호(행정·2)▲정욱순(〃·3)▲인국한(〃·3)▲박소문(〃·4)▲유동욱(정외·2)▲천경희(〃·3)▲송옥선(〃·4)▲조민오(경행·3)▲신동곤(〃·3)▲이두환(〃·4)

◇經商大學 ▲서원교(경제·2)▲최광조(〃·3)▲유권승(〃·4)▲이광용(〃·4)▲전대섭(무역·2)▲이봉섭(〃·2)▲권태선(〃·4)▲차양원(경영·3)▲양희석(〃·3)▲강길순(〃·4)▲양수환(전산·2)▲전재영(〃·3)▲김진만(〃·4)▲최의업(회계·2)▲김현창(〃·2)

◇農林大學 ▲김유민(농학·2)▲양시호(〃·4)▲박효원(농경·2)▲김인식(〃·4)▲최차호(조경·2)▲노훈호(〃·4)

◇工科大學 ▲양운석(전자·2)▲박희창(〃·3)▲윤여훈(〃·4)▲김시형(전기·2)▲박윤규(〃·4)▲윤영식(건축·3)▲정진채(〃·4)▲구본희(토목·2)▲고민호(식공·2)▲이계원(〃·3)▲박동수(〃·4)▲김영인(공경·3)▲강형구(〃·4)

◇師範大學 ▲장봉철(국교·3)▲고명수(〃·4)▲배경원(사교·2)▲이영학(교육·2)▲이영만(〃·3)▲김택주(국사교·2)▲주용문(〃·3)▲노경란(수교·2)▲황경숙(〃·3)▲박영덕(가교·2)

◇二部大學 ▲박형중(전산·3)▲황의순(회계·2)▲이근복(공경·2)▲이석용(〃·3)

新刊안내

「스승은 없는가」 成來運著

참敎育 재건을 주장

韓國敎育의 問題點 지적

日帝殘滓 청산한 自律性확립이 선결

成來運씨의 敎育에세이集「스승은 없는가」가 眞文出版社에서 나왔다.

제1부는 아이들이 직접 사례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하여 해설을 덧붙이는 형식으로된, 교육이념을 내용으로한 글을 이다.

제2부는 일선 교장, 교감, 교육장등 교육관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글들로서, 교육내용 교육철학 교육관리등 교육전반에 걸친 논의를담고 있다.

제3부는 본격적인 교육논문, 참다운 교육의재건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그는「스승이없는 교육」에서 찾고 있다. 아이들은 스승을 믿지않고 스승은 스승으로서의 책임 의무및 사명감을 잃음으로써 한국교육의 파행성이 비롯되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를고치는 길은 교육에 있어서의 일제잔재의 청산, 자율성의 확립이라고 이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교부 학실장, 연세대교수, 문과대학장, 국민학교 교장등 폭넓은 일선 교직체험을 바탕으로한 이글들은 교육실천의 기록이요, 그에의해 모아진 교육이념의 개진은 우리교육계에 커다란 충격이 될것이다.

〈眞文出版社刊 3백20면 값 1천2백원〉

文化短信

불교拓本展 28일까지美術會館

불교拓本전시회가 한국불교연구원 주최로 22일부터 28일까지 安國동 로터리옆 미술회관에서 열린다. 화엄경금강경 법상경등관좌류,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비롯한 범종류, 추사 경허현판등 희귀 현판본류, 이차돈순교비등 석물탁본류, 신라기와를 비롯한 와당류 1백20여점이 전시된다.

「업중한 監視」 3月12日까지 三一路극장

극단 倉庫극장은 주네作「엄중한 監視」를 朱虎嶷연출로 24일부터 3월12일까지 三一路창고극장에서 공연한다. 개막은 평일밤7시, 土·日 낮4시, 밤7시. 이작품은 인간이 극한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미와 사랑을 추구하는 나머지 그것을 엄격히 감시하려 하는 사나이의 집념을 묘사하고 있다. 주네의 체험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출연에는 서영일 박동근 장회용 신준호.

메아리

卒業後의 卒業

▲머뭇거리며 꼭 무얼 잃어버린사람처럼 서성거리며, 교정을 빠져나가는 卒業生— 그들은 이제 學生으로서는 결코 校庭에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卒業生을 보낼 수는 있어도 맞을 수는 없다. 딱딱하지 않고 그렇다고 흐물거리지 않는 순수한 大學社會에서 무한한 가능성을지닌 英才들로 特權을 누리던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期待를 등에 지고 출발점에 나열해 있다. 그들은 어떻게 달리든, 가다가 쓰러지든, 쉬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이 꾸리는 삶은 정말그들의 것이다.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물을 떠 이는 선배도, 스승도 없다. 자신이 선배요, 스승인 셈이다.

▲「卒業이 出發이다」라는말을우리는충분히 실감할수 있다. 그렇우리의 삶은 出發(다짐과 設計가 포함된)의 연속이라고 보면「卒業」그 자체를 졸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요한 것은 졸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게다. 자신이 원할 때 졸업하는 슬기, 여기에 집념 섞인 도전등 삶을 졸업하기 위해 우리는 學校를 졸업하는 것이다. 校門을 나서며「卒業했다」고 學生身分을 흔쾌하게 벗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身分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身分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는 비굴한 制約으로 숨막히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삶을 스스로 엮어가며 敎師의 입장에 서느냐, 아니면 學生의 입장에 그대로 영원히 머무르냐의 문제이다. 스스로 學生이 되고 남에겐 스승의 입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社會 어느곳에서 어떻게 일하든 個人의 獨特한 個性을 뿜어내지않고는 살아가는 희열을 느낄수 없는 世上이다. 중요한 것은 身分이 아니다. 삶, 그 자체이다.

▲우리 어차피 졸업후의졸업을 생각해야 한다. 學校門을 나서는 졸업은 무엇을 남기지 않는, 배워서 얻은졸업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무엇을 남기는 먼 훗날의 졸업이다. 이런 뜻에서도 大學門을 나서는 졸업은 새로움이다.

우리 東國人 중에 1천여명의 學生들이 卒業을 한다. 각기 열릴 門으로 새사람이 되어 떠나는 이들에게 母校는 영원한 故鄕으로 남을수 있게 全東國人의 따뜻한 성원이 있어야겠다. 졸업생을 보내고 新入生을 또 다시 맞아들이는 요즘, 모두 새로와져야겠다. 가는 사람도, 오는 사람도, 기왕에 남은 사람도—. 〈澤〉

大学生·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r

時事英語社 直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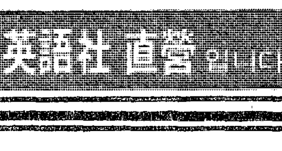
현대학원

(舊 뉴우월드學院)

□成人英語班(I) TIME, Digest, 英文解釋, 三位一体, TOEFL, 英作文, 文法·解釋, 實力基礎, 大學編入英語, 就職·考試英語, Word Power, Vocabulary 20,000, AFKN 청취

□成人英語班(II) English 900 會話, Spoken 會話, E. F. T. 美國人會話(매주 土 공개강의), Screen 英語 会話(VTR 이용 総天然色)

3月2日 개강
수시등록·접수
아침 7시~밤 9시 까지
☎㉙ 6626~9



현대학원은 時事英語社 直營입니다.

大學英語의 경이적 best seller!

TOEFL 就職英語

朴鍾世 著

基礎편이 잘 정리되어 있고, 설명이 자세하여 혼자서도 공부하기 쉬우며

最近에 시행된 각종 試驗問題가 풍부히 수록되어 있어, 新傾向을 알고 공부할 수 있으며

文型연습, 単語·熟語, 類似語句의 해설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가장 能率的인 学習方法을 택하고 있는 大学生英語의 大典 〈10版 發行〉

주요내용: 基礎정리편/単語·熟語편/動詞활용편/就職시험편/国家考試편/敎師시험편/海外留学시험편/TOEFL해설편

大學生·英語敎師를 위한

英作文研究

〈五版 發行〉 朴鍾世 著 값 3,300원

太陽文化社 電話(73)8629

大學生과 成人을 爲한 英語·独語·日語

개강3月2日

留學英語
高級英作
大學三位一體
TOEFL TIME
英文解釋①②③
AFKN 文法 및 解釋
大學生必須英語
DIGEST Wordpower
NEWSWEEK DRAMA
Vocabulary10,000
Vocabulary 20,000
考試 및 就職英語
English900 美人會話
速成會話, 生活英語會話
英作文秘訣 解釋 및 英作
英文解釋 1200題
留學國史, 時事論文
日本語(初·中·高級)
ダイジェスト, 會話班
獨語文法完成, 獨文解釋
AFKN NEWS 家庭通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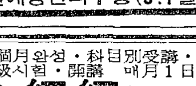
院長:文昌淳

종로2가 삼화고속뒤태극당골목안 74-2442, 72-9226, 74-0483

時事英語学院

東國大學校
電子計算專攻學院
(男·女) 受講生募集 (주·야)

1. 募集人員: 400名 (1年및 2年과정)
2. 敎育課程: 電子計算專攻 (프로그래머)
3. 資格: 高等學校卒業및 同等以上의 學歷소지자
4. 提出書類: 入學願書 (所定樣式) 1通
5. 願書交付및接受: 1978年 2月~2日
6. 銓衡方法: 適性檢査및 面接
7. 銓衡日時: 3月4日 (土) 午後1時
8. 合格者發表: 3月8日 (水) 午前10時
9. 特典
①國家技術資格 情報處理技士 2級 應試資格을 부여
②陸軍E.D.P.S要員養成 指定敎育機關임
③大型 富士通의 FACOM230—45S컴퓨타 導入과 同時에 1978年1월 새로 新築된 컴퓨타 센타에서 實習함
④各種 奬學金 수여함
10. 其他: 상세한 內容은 東國大學校 다음電話로 問議할 것
교환 ㉗8131~45 (구내) 283번
직통 ㉗6128



▲고도근시 ▲백내장용 ▲가벼운 렌즈

안경은 시력검사따라

광신안경 TEL 74-5559

신예용안과 1층(3.1빌딩 광교中間)

傳統있는 受驗준비 講座

1個月완성·科目別受講·공무원·就職 各級시험·開講 매月1日 요일別配定

經濟學 經營學 會計學

公平學院 前콜럼비아 ㉓㉕ 0706·종로 和信(신생)백화점 옆골목

TOEFL WORD POWER Digest·日本語 서반아語·綜合영어 英文解釋·貿易英語

개강 3月1日

公平學院 前콜럼비아 ㉓ 9787 ㉕ 0600 종로 和信(신생)백화점옆골목

군·지원 행정병 입대안내

자격: 각군 17~26세 고졸이상 (해군중졸이상)

특전: 수료후 자격증취득·각군 전형을 거쳐 입대함

※신검필한자 또는 징집영장 받은자 입대상담 환영 (육·해군 교련혜택받음.)

서예

펜글씨·붓글씨·한문·챠드·프린트 기초부터 철저히지도

관인 인성서예학원 종로1가버스정류장 무과수세과 2층 ㉒5346 ㉕3771

軍 행정지원병모집 (78년6월입영) (우선순위마감)

●만17세~25세 ●입영…행정병교육후지원입대 (근무년한 일반병과동일함) ※제대후공무원채용·승진시험에점수가산혜택

※대학교련이수자복무년한단축혜택 ●육군참모총장위촉제23호에의거모집함

◎복학시기조절이 가능

종로1가 버스정류장 톰보이 2층 서울농협옆

관인 유니타자학원 (구·유니온) ㉕2323 ㉕9716